

◁ 書 評 ▷

中國政治論

金 河 龍 著
 서울博英社
 1984年 442面

(I)

최근에 中國에 대한 관심이 高潮되고 있는 것은 晚時之嘆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 中國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우리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中國에 대한 研究, 특히 現代中國政治에 관한 研究가 等閑視되어 왔던 것은 自省해야 할 일이다. 中國研究의 이와 같은 落后性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現代中國에 관한 研究를 禁忌視하고 中國研究에 必要한 資料에 대한 接近을 엄격히 통제한 우리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이 中共研究의 落后性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 따라서 冷戰의 論理가 支配적이었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中國研究는 거의 全無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9년에 출판된 金俊樺선생의 「中國共產黨史」와 1964년에 출판

1) 韓國에서의 中共研究에 관해서는 崔明, “中共研究: 社會科學的 視角에서,” 韓國共產黨研究協會, 共產黨研究現況(法文社, 1981), pp. 101-113을 참조하였다.

된 金相浹선생의 「毛澤東思想」이 이 時代의 現代中國研究에 대한 거의 唯一한 業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美·中關係의 改善, 中共의 國際 聯合加入 등으로 冷戰體制가 이완되었고, 그에 따라 中國研究가 活氣를 띠게 되었다. 主要 大學에서 中國政治에 대한 講義가 開設되고, 많지는 않지만 現代中國政治에 관한 專門書와 概說書가 출판되었다. 金河龍教授의 「文化大革命研究」(1975)와 崔明教授의 「現代中國의 理解」(1975) 그리고 李泳禱教授의 「8 億人과의 對話」(1977)가 代表的인 業績이라고 하겠다. 1970 년대말과 1980 년대에는 鄧小平 政權의 門戶開放政策 등으로 中國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또한 理念서적에 대한 부분적인 解禁조치에 힘입어 中國에 대한 여러가지 著書와 翻譯書가 출간되었다. 특히 여러가지 시각을 보여 주는 外國學者들의 論文 및 著書가 많이 번역·소개되고 있는 것이 1980 년대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毛澤東研究의 世界的인 大家로 알려진 Stuart Schram의 「毛澤東」(1979)과, 毛澤東研究의 古典的 資料로 알려진 Edgar Snow의 「중국의 붉은별」(1985) 등이 번역 출간 되었으며, 毛澤東이후의 中國大陸에 관한 外國學者들의 論文을 編譯한 李泳禱教授의 「10 億人の 나라」(1983)와, 鄧小平·趙紫陽 등 中國의 改革主導勢力의 주요 政策文件을 번역·소개한 柳世熙教授의 「오늘의 中國大陸」(1984)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80 년대에는 外國學者들의 著書와 論文이 많이 소개되 었지만, 그에 비하여 國內學者들의 著書출판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고 하겠다. 崔榮教授의 「中共政治軍事論」(1983)과 金河龍教授의 「中國政治論」등이 學論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 본 바와같이 現代中國政治에 관한 우리學界의 研究歷史는 日淺하고, 따라서 研究業績도 대단히 貧弱한 實情이다. 이와 같은 中國研究의 落后性은 무엇보다도 研究者의 絕對數가

不足하고, 中國政治에 관한 文獻이 또한 絶對적으로 不足한 현상을 낳게 하였다. 따라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學界는 中國政治에 관한 講義를 개설하고도 學生들에게 現代中國政治의 全般에대하여 소개해 줄 수 있는 마땅한 概說書도 없는 형편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崔明教授의 「現代中國의 理解」(1975)가 아쉬운대로 그와같은 소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이 책이 출판된 이후 中國政治의 엄청난 變化로 말미암아 새로운 教材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金河龍教授의 「中國政治論」은 이와 같은 學界의 필요에 부응하여 「어제와 오늘의 中國政治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광범위한 分析和 解釋을 시도한 것」으로 우선 注目을 받을만 하다고 하겠다.

(II)

金河龍教授의 「中國政治論」은 모두 6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1章과 2章에서는 中國에서 共產主義運動의 發生과 背景, 그리고 中國共產體制의 形成過程을 간략히 서술하였고, 第3, 4, 5章에서는 現代中國政治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政治理念, 主要政策, 그리고 政治組織을 集中的으로 分析하였다. 그리고 第6章에서 對外政策을 독립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그야말로 現代中國政治의 모든 主要領域을 포괄하려고 한 著者의 意圖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分析和 解釋을 시도한 著書의 內容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主要內容은 다음과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著者는 『毛澤東을 위시한 中國共產黨의 지도자들은…… 共產主義運動이 사실상 중국의 民族主義運動과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음을 계속 강조해 왔다는 사실에 注目』하여 1840년 阿片戰爭이후 中國에서 전개된 『反帝·反封建』의 격렬한 民族運動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소련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소수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中國共產黨이 創黨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920 년대의 中國共產主義運動은 코민테른의 一貫性없는 간섭과 黨의 指導力의 弱化和 混亂으로 말미암아 國共合作 - 暴動主義 - 慎重主義 - 冒險主義路線을 반복하던 끝에 『1930 년에 이르자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幹部와 黨원이 다같이 四方으로 흩어지는, 붕괴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戰略的 파탄』에서 起死回生을 하게된 것은 毛澤東이 登場하여 『중국공산주의혁명의 새로운 方向과 戰略을 제시』하면서부터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毛澤東은 農業社會인 중국에 있어서 共產主義革命은 광범위한 農民勢力을 革命力量으로 集結시키는 農民革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민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여 농촌에서 혁명근거지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毛澤東의 農民革命路線과 戰略이 적중하여 1931 년에는 中華소비에트共和國을 設立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成功은 國民黨政府의 대규모 掃共作戰을 유발하여 마침내 1934 년에는 中華소비에트의 붕괴와, 지금은 傳說化된 大長征으로 연결되면서 또다시 中國共產黨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帝國主義的 侵略戰爭은 中國共產黨으로 하여금 回生の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黨勢의 비약적인 擴大·發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毛澤東은 抗日民族統一戰線, 新民主主義論등을 주창하면서 中國의 民族主義勢力과 結合하여 『內的 不條理와 矛盾』으로 弱화·孤立된 國民黨政府를 中國大陸으로부터 축출하고 共產政權을 樹立하는데 성공하였다.

(2) 이와 같이 著者는 中國革命過程을 정리한 다음, 中國政治의 性格을 규정하는 政治理念, 즉 『中國의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毛澤東思想을 分析하고, 그에 대한 批判으로 제기된 實用主義路線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著者に 의하면 毛澤東思想은 『湖南省農民運動視察報告』가 발표되었던 1920 년대에서부터 『人民內部的 矛盾을 올바르게 處理하는 問題에 관하여』가 발표되었던 1950 년대 사이에 그 內容과 體系가 形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1937 년에 발표된 『矛盾論』과 『實踐論』에 注目하여 大躍進과 文化革命의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이 되는 不斷革命理論, 階級鬭爭論, 政治와 思想優先主義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毛澤東에 의하면 『矛盾은 自然界·人間社會를 막론하고 어떠한 事物에 있어서나 普遍的으로 存在하는 것으로서……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대로의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毛澤東은 矛盾의 普遍性和 함께 特殊性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主要矛盾과 次要矛盾을 區別하고, 이같이 성질이 서로 다른 矛盾의 解決方式도 달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教條主義的인 傾向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毛澤東은 1957 년에 社會主義단계에 있는 中國社會에도 성질이 다른 두가지 종류의 矛盾, 즉 敵과 同志 사이의 矛盾과 人民內部的 矛盾이 계속 存在한다고 지적하면서도 人民內部的 모순을 처리하는 방법은 적과 동지사이의 敵對的 矛盾을 처리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毛澤東의 『矛盾論』에서는 社會主義社會에서도 階級矛盾이 存在하며, 따라서 階級鬭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文化革命의 이데올로기적 原型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抗日民族統一戰線과 百花齊放政策에서 보여준것 같은 이데올로기적 伸縮性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著者に 의하면 百花齊放과 大躍進運動의 失敗로 黨內外에서 階級調和와 階級協力을 주장하는 思潮가 高潮되자, 毛澤東은 마침내 階級矛盾과 階級鬭爭을 再強調함으로써 左傾的이고 急進的인 革命路線을 산출했다는 것이다.

毛澤東에 의한 毛澤東思潮의 左傾化·教條化의 경향은 『實踐論』

의 變質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毛澤東思想의 認識論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實踐論』에서 毛澤東은 認識過程을 두 段階로 區分하고, 두 段階의 相互聯關性을 강조하였다. 다시말해서 『客觀的 物質에서 主觀的 精神으로 비약하는 段階』와, 『主觀的 精神과 思想이 客觀的 外界의 법칙을 올바르게 反映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段階가 끊임없이 反復되어야만 經驗主義와 空想的 冒險主義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文化革命과정에서 毛澤東은 『認識의 제 1 단계, ……存在에서 思想에 이르는 단계, 다시말하면 중국이 당면한 具體的 現實에 대한 感性的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思想이 형성되는 過程의 局面보다는 오히려 思想에서 實踐에 이르는 局面』을 더 강조함으로써 그 자신이 『實踐論』에서 그토록 배격하였던 教條主義·極左空論主義·冒險主義로 變質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毛澤東의 左傾化된 革命路線에 대한 批判과 挑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文化革命이전에 이미 合二而一論과 같이 階級和平과 經濟發展을 주장하는 實用主義路線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毛澤東思想에 대한 批判은 鄧小平政權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즉, 鄧小平은 『實踐은 眞理를 檢證하는 唯一의 基準』이라는 觀點과 『實事求是의 名分』을 내세워 階級鬭爭의 終結을 선언하고 經濟發展과 現代化를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毛澤東이 경계한 『經濟主義』와 『唯生產力論』으로 대표되는 實用主義路線으로 回歸하였던 것이다.

(3) 政治理念의 具體的인 行動이라고 할 수 있는 主要政策에 대하여 著者は 가장 많은 紙面을 할애하였다. 第4章의 『主要政策의 展開와 大衆運動』, 그리고 第6章의 『對外政策』이 이 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著者が 政策問題에 力點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著者は 中共政權이 수립된후 현재의 鄧小平의 實用主義政權이 등

장하기까지 中共指導層이 추진하였던 거의 모든 주요 政策을 年代順으로 소개하면서 中國의 指導層사이에 전개되었던 政策論爭, 權力鬭爭, 그리고 路線鬭爭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비록 著者는 政策論爭과 權力鬭爭, 그리고 路線鬭爭을 명백히 구별하고, 그들의 相互關聯性에 입각하여 中國政治의 性格變化를 分析하지는 않았지만 著者의 主要政策分析을 바탕으로 評者나름대로 정리·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中共政權의 수립에서 1956년의 第8期黨大會까지는 新生共產政權의 安定기틀을 다지고 『社會主義社會로 移行하기 위해서 필요한 條件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人民民主專政體制的 確立과 社會主義改造를 위한 대규모 大衆運動이 展開되었다.

이 時期에도 指導層사이에 主要 政策잇슈에 관한 意見對立과 權力鬭爭이 있었지만, 그것이 路線鬭爭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政策決定過程에서의 指導層間的 合意는 대체로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나) 그러나 1956년의 8期黨大會이후 大躍進運動이 展開되는 1958년까지는 中國政治의 轉換期라고 할 수 있다.²⁾ 후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運動과 平和共存政策, 그리고 重工業中心의 經濟發展戰略의 矛盾과 限界등 中國의 國內外情勢는 政策的인 突破口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百花齊放·百家爭鳴運動과 反右派鬭爭, 그리고 三面紅旗運動이 展開되면서 점차로 毛澤東思想의 左傾化가 加速되고 이데올로기적인 路線鬭爭이 격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2) 많은 學者들이 1956년의 第8期黨大會이후 大躍進運動이 展開되기까지를 中國政治의 증대한 전환기로 보고 이 時代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鄧小平政權에 의하여 발표된 『歷史決斷』도 이와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西方學者의 견해에 관해서는 Roderick MacFarquha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Oxford Univ. Press, 1974)을 참조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大衆動員의 방식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계획하였던 大躍進과 人民公社, 그리고 總路線의 三面紅旗運動의 失敗는 劉少奇·鄧小平의 調整政策을 대두하게 하였고 黨內外에서 毛澤東의 急進路線에 대한 간접적인 批判이 提起됨으로서 中國指導層 사이에는 두개의 路線과 政策定向, 그리고 서로 相反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權力集團간의 暗鬭가 進行·深化되면서 社會主義教育運動이 전개된다.

(라) 이와같은 두 路線의 暗鬭와 긴장관계는 1965 년말에는 文化革命으로 폭발된다. 吳晗의 『海瑞罷官』에 대한 姚文元의 文藝批判으로 點火된 文化大革命은 中國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의 路線鬭爭과 權力鬭爭으로 발전하였다.

文化革命이 일반적인 權力鬭爭이나 政策論爭과 다른 점은, 첫째로 中國指導層간의 對立과 分裂이 서로 相反되는 이데올로기적 傾向과 다른 사회계층의 상반된 이익을 대변하는 傾向을 보였으며, 둘째로 指導層간의 權力鬭爭過程에 大衆이 동원·참여함으로써 全國的이고 公開的인 鬭爭으로 변모하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中國共產黨자체가 비판·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文化革命으로 말미암아 中國의 政治過程과 權力構造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억제되고 통제되었던 勢力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權力엘리트가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革命大衆組織과 軍部勢力의 정치참여와, 이들을 배경으로한 文革左派와 林彪의 軍部엘리트 勢力의 등장은 중국지도층간에 存在하였던 同質性을 파괴함으로써 合意에 의한 政策決定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마) 文化革命으로 파생된 混亂은 1969 년의 9 全大會를 계기로 정리되기 시작하였고, 1970 년 『毛澤東동지의 친밀한 戰友이며 繼承者』라고 公認되었던 林彪의 沒落으로 過度한 軍部の 政治干涉을 억

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의 權力構造는 周恩來로 상징되는 舊官僚勢力, 葉劍英을 중심으로 한 軍部勢力, 그리고 文化革命左派勢力이 不安한 勢力均衡을 유지하면서 毛澤東死後의 中國의 將來문제를 놓고 끊임없는 갈등을 연출하였다. 그것은 1970년대초의 實用主義的 政策의 부분적인 復活, 1973 년의 文化革命의 축소판과 같다는 批林批孔運動의 전개, 1975 년 4 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周恩來에 의한 4 개 現代化라는 政策目標의 設定과 鄧小平의 活躍, 1976 년 天安門事件과 鄧小平의 沒落등과 같은 일련의 드라마를 엮어 내었다.

이와 같은 勢力均衡과 不安한 鼎立狀態는 毛澤東의 死亡과 文化革命左派의 除去로 왜해되었고, 1978 년 12 월에 개최된 黨 11 期 3 中全會에서 鄧小平이 주도하는 實踐派의 승리가 확정됨으로서 實用主義의 路線과 政策이 본격적으로, 대규모적으로 復活·擴大되기에 이르렀다.

(Ⅲ)

앞에서 著者の 『中國政治論』의 主要內容을 評者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요약해 보았다. 그것은 1920 년대의 中國共產黨의 創黨으로부터 中共政權의 수립, 그리고 毛澤東의 死亡과 鄧小平政權의 改革政治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中國革命과 中國政治의 全過程을 概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著書를 통하여 중국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眺望할 수 있기 때문에 著者 자신이 그 必要性을 절실하게 느꼈던 單一教材의 개발이라는 목적은 훌륭히 달성했다고 하겠다. 사실 이 著書는 우리 中國政治學界가 내 놓은 거의 唯一한 綜合的인 概說書라는 점에서 著者の 이 分野에 대한 學問的인 寄與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評者를 비롯한 이 分野의 研究者들의 自省과 本발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開拓者의인 역할을 하게 될 이 著書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著書는 앞으로 讀者들의 끊임없는 批判과 問題提起를 통하여 계속 補完·發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評者도 나름대로의 基準에 따라서 이 著書의 主要內容가운데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기해 보았다.

(1) 中國革命過程에 관해서 評者는 두가지 質問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로 中國共產主義運動이 成功할 수 있었던 理由는 무엇이며, 둘째로 中國의 革命經驗의 要諦는 무엇이며, 그것이 中國政治過程을 分析·理解하는데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나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 著者는 毛澤東의 등장과 農民革命으로의 轉換, 日本帝國主義의 侵略과 民族主義運動과의 結合, 國民黨政府의 부패와 무능력, 美國의 失敗 등 多角的인 각도에서 中國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의 勢力擴張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要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社會革命運動으로서의 共產主義運動의 展開이며, 農民들의 참여와 지지를 획득한 구체적인 政策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³⁾

다시말해서 江西소비에트政權과 延安時代의 具體的인 政策과 그 效果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社會革命으로서의 中國共產主義運動을 把握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번째의 질문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中共의 革命經驗은, 특히 소위 延安時代의 經驗은

3) 中國革命過程과 中國共產黨의 勢力擴張에 관한 多角的인 分析에 관해서는 Lucian Bianco, Origins of the Chinese Revolution (Stanford Univ. Press, 1971)을 참조하고 Chalmers Johnson의 農民民族主義 (Peasant Nationalism) 理論을 반박하고 社會革命으로서의 中國共產黨의 革命政策을 分析하여 共產黨勢力의 擴張을 설명하려고 한 것으로는 Donald G. Gillin, "Peasant Nationalism in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Journal of Asian Studies 23 (Feb, 1964), pp. 269-289를 참고할 수 있다.

中國指導者들의 政治理念과 政策定向의 形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 특히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은 延安經驗을 계승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中國의 革命經驗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2) 政治理念, 특히 毛澤東思想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첫째로, 毛澤東思想에는 源泉的으로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을 촉발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1950년대 후반부에 이르러 毛澤東思想의 變質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로는 後者の 경우라면 왜 毛澤東思想의 變質이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소련의 中國專門家들과 鄧小平政權下에서 發表된 일부 反毛主義的 學者들은 毛澤東思想의 政治主義, 平等主義, 主觀主義的 傾向은 소위 小生産者로서의 農民의 精神狀態 (peasant mentality)를 反映한 것이라고 봄으로서 前者의 立場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鄧小平政權의 公式的인 立場과, 評者를 包含한 많은 西方學者들은 後者の 立場을 택하고 있다.⁵⁾ 즉 毛澤東思想속에는 急進的인 要素와 實用主義的 要素가 併存하고 있으며, 毛澤東思想의 左傾化·教條化의 傾向은 大躍進運動이후 強化·變質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毛澤東思想의 變質原因에 대한 疑問이 제기된다. 그것은 毛澤東이 왜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과 같은 前代未聞의 冒險과 實驗을 감행했느냐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理論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左派路線의 立場을 단순히 權力鬭爭의 측면에서 또는 老

4) 延安政府의 政策을 分析하고 소위 延安經驗의 具體的인 內容을 소개한 것으로는 Mark Selden, The Ya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 (Cambridge, Mass., 1971)을 들 수 있다.

5) 이와같은 結論에 대해서는 評者의 “毛澤東思想考” 박순영외 共著, 現代社會와 마르크시즘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p.84-107을 참고.

革命家の 로맨티시즘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中國指導者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毛澤東思想은 毛澤東 개인의 創造物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普遍的 眞理를 中國이라는 具體的인 條件에 創造的으로 適用하는』 過程에서 産出된 『集體的인 知慧의 結晶體』라고 한다면 毛澤東思想의 變質을 가져오게 한 中國의 具體的인 條件에 대한 深層的인 分析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社會的 階層과 集團이 毛澤東의 左派 路線에 대하여 共感을 했으며, 왜 그들이 支持했는지가 밝혀져야만 毛澤東思想을 보다 具體的으로 이해할 수 있고 中國政治와 社會의 力動性을 把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毛澤東思想의 變質原因을 社會構造的 측면에서 究明해야 한다는 論理와 마찬가지로 主要 政策의 展開過程도 같은 시각에서 分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中國指導層의 政策內容은 이데올로기와 中國的 現實의 變증법적 상호관련성의 맥락에서 分析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中國社會의 具體的 現實은 무엇이며, 이것이 이데올로기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어떻게 파악되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와 현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산출된 政策은 現實과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變形시켰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政治理念과 中國社會의 變化, 그리고 政策의 變轉을 總體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作業을 위해서는 우선 中國社會의 具體的 現實을 例示해주는 基礎的인 資料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中國의 人口의 構成과 變動, 各種의 經濟的인 指標, 그리고 일반적으로 近代化過程과 관련되어 지적되는 各種의 社會·文化的 指標등을 附錄의 形式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主要政策은 이러한 中國의 具體的인 現實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解析을 바탕으로 그 現實을 극복·발전시키고자하는 것이므로

로 主要政策의 分析을 통하여 中國指導層안에 존재하는 多樣的 政策定向과 路線의 基本성향을 파악하고, 상이한 路線과 政策定向의 相互關係를 究明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로, 主要政策의 展開過程을 時代順으로 소개하되, 中國의 具體的 現實의 變化와 路線과 政策定向의 變動이라는 차원에서 時代區分을 하고, 各時代의 支配的인 權力構造와 政策定向의 特徵을 分析·소개하는 것이 中國政治의 動態的인 性格을 보다 體系的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끝으로 이 著書가 거의 唯一한 中國政治에 관한 單一教材라는 점을 고려할 때 中國政治를 分析하는 方法과 主要쟁점을 概括하고, 主要研究業績을 정리해 줌으로서 讀者들로 하여금 中國政治에 관한 研究動向과 傾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984. 2.

徐 鎮 英